

‘거리에서 만나는 예술, 일상에 스며드는 감동’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가까운 거리에서 만나는 가장 특별한 공연

‘2026년 하반기 남구거리음악회’ 지역예술인 공모 최종 20팀 선정
완료



▲ 2026년 남구 거리음악회 상반기 지역예술인 활동 사진

(재)고래문화재단 이사장 (남구청장 임현철)은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에게 일상 속 다채로운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2026년 남구 거리음악회’ 하반기 지역예술인 공개 모집을 마무리하고 최종 20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며 거리에 예술에 대한 깊은 열정과 뛰어난 역량을 가진 지역 예술인(개인 및 단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접수 마감 후 재단은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행정심의회와 전문가 종합심의회를 순차적으로 거쳤으며, 거리 공연의 특성에 맞춰 시민들과 현장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대중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최종 선발했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총 20팀의 지역예술인들은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남구 관내 주요 거리 공간 곳곳을 무대로 삼아 시민들의 바쁜 일상 속 휴식과 같은 감동을 선사하는 소규모 라이브 공연을 본격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이번 공모 결과에 따른 최종 선정 팀 명단은 고래문화재단 공식 홈페이지(누리집)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 2026년 남구 거리음악회 상반기 지역예술인 활동 사진

재단 관계자는 "이번 하반기 공모에 울산의 유능한 예술인들이 보여주신 뜨거운 관심과 참여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선정된 20팀의 예술인들이 남구의 거리를 활력 넘치는 무대로 채워 마음껏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거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예술의 시간에 많은 응원과 기대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향후 공연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재)고래문화재단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